

◇ 特別論文 ◇ 나의 人生觀
人間哲學 序想【1】 人間的인 哲學

朴致祐

目次

- 一. 危機와 人間
- 二. 人間的인 哲學
- 三. 나의 人間觀
- 四. 人間다운 人間

一. 危機와 人間

危機의 哲學者「하이네만」(F.Heinemann)은 그의 著「哲學의 所途」에서 現代의 危機를 論하여 그것은 結局「人間的危機」그것이라고 結論하였다. 氏는 現代의 危機는 文化, 精神, 科學, 等 部分的인 危機가 아니라, 實로「人間的 危機」即 人間自體가 內包한「理性的 危機」그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近代의「르네쌍스」가「人間」을 發見한 以來 오래동안 그들의 指導理念(氏의 用語로 말하면「意味中心」)으로써 거침없이 通用되는「精神이 眞理」가 現代에 이르러 破綻되게 됨으로써 結果된 너무나 理性的인 近代人的 危機 그것이라고 말하였다. 實로 近代文化는 理性的 文化이며, 그것은 그들의 所謂「르네쌍스」를 通하여 古代的 指導理念인「宇宙」로부터 뿐만 아니라 中世的 指導理念인「神」으로부터 까지

解放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發見한 近代人的「理性」의 所産으로써의 文化이다. 그러므로 氏에 依하면 現代文化의 危機는結局이 理性的인 人間이 너무나 理性的인 때문에 빚어지는 人間 그것의 危機에 還元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이네만은 現代가 가진 危機克服의 出發點을 人間 그 自身에 무치 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以上과같은 그의 危機觀에서 看過하여는 안될 重大한 錯誤를 指摘안할수 없다. 그것은 即 그가 意味하고 또 한 問題삼은 危機는 單純의「哲學의 危機」다시 말하면「思想의 危機」에 지나지 못한 것이고, 말하

자면 決코 이러한 危機가 그리로 부터 派生되는 根源的이고, 저 底礎的인 危機 卽 社會의 危機 經濟的 諸機構의 危機를 말함이 아니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 잇어서는 危機는 端的으로 思想의 危機로서만 問題되었을뿐만 아니라, 同時에 그것은 危機一般의 根源인 底礎的인 危機와의 具體的 關聯에서 考慮되지 안혔다는 點이다. 思想의 危機는 單純히 그것만으로

端的으로 危機로서 그의 關心의 全部를 차지 하였든 것이었다. 이리하여 서만 眞實로 그에 잇어 서는 危機는 이같이 손쉽게 人間의 危機에 解消될수 잇든것이며, 따라서 同時에 危機克服은 무엇보다도 먼저 人間의 危機그것을 克服함으로써만 可能하다는 그의 結論의 不自然한 合理化를 □할 수 잇었던 것이다. 우리의 意圖는 따라서 그의 이 結論을 反駁함에 잇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結論의 不當한 推理 그것을 指摘함에 잇다.

「하이네만」에 잇어 서는 危機는 端的으로 思想의 危機로서만 問題되었 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잇어 서는 反對로 存在하는 危機는 무엇보다도 먼저 社會의 危機를 意味한다. 우리에게 잇어 서는 思想의 危機 人間의 危機理性의 危機는 다만 이 底礎的인 社會의 危機와의 具體的인 關聯에서 考慮됨으로써만 問題삼어지기 때문이다. 人間의 危機는 單只 이 全體的인 危機의 部分으로서의 危機이며 底礎的인 危機의

派生으로서의 危機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럼에도 不拘하고 何故로 우리는 그와 함께 危機克服의 出發點을 人間에 두려는 것인가? 何故로 危機一般의 克服을 人間의 危機의 克服으로부터 始作하려는 것인가? 이에 對한 우리의 對答은 簡單하다. 卽 危機를 克服해야만될 存在-이 難業의 遂行을 다만 그의 손에 依하여서만 期待할수잇는 唯一의 存在가 곧 人間그 것이기 때문이다. 諸危機의 發生的 順序야 如何던 危機를 危機로서 把握할수 잇을 主體가 人間임과 同時에 어떠한 危機를 莫論하고 이것을 打開할 굳센 實踐의 主體될 者 亦人間存在 以外에는 아모 것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人間을 出發點으로 擇하는 動機는 다만 以上과 같은 純全히 方法的인 必要로부터인 것이다. 人間自體의 危機를 克服함이 없이는 如何한 危機의 克服도 바랄 수 없겠기 때문이다. 問題는 發生의 順序가 아니라 克服의 順序다. 그러면 現在가 가진 「人間」은 果然 이 같은

克服을 堪賞할 主體됨에 充分한가? 否다.

現代가 가진 人間은 너무나 理智的이고 너무나 平面的이고 너무나 無氣力한 人間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生鮮한 人間性을 全的으로 喪失한 枯渴된 人間, 다시 말하면 非人間的인 人間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人間性的 喪失이란 이 點에-다시 말하면 그가 이같이 너무나 非人間的인 人間이란 이

點에 現代가 가진 人間의 危機를 보는 것이다.

現代가 要求하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첫째 되는 課題는 그림으로 危機一般의 克服을 앞두고 이일을 成功的으로 可能하게하기 爲하여 이 「人間의 危機」의 克服을 喪失된 그의 人間性的의 奪還으로부터 始作함에 잇을 것이다.

새로운 「르네상스」는 眞實로 새로운 人間을 發見하지안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危機克服의 唯一의 武器인 「實踐」의 참된 主體됨에 充分한 새로운 人間-힘 잇는 人間-우리들의 述語로 부르면 「人間다운 人間」을 再發見함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人生觀은 실로 이 같은 人間的인 人間人間다운 人間을 要求해야 마지 안는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人生觀으로서 나의 「人生觀」 卽 「人間哲學」을 여기에 提出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人間哲學」은 어떠한 哲學을 말함이며, 또한 그것은 어떠한 內容의 哲學일것일가?